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3, No. 128, pp.95-140
<https://doi.org/10.29212/mh.2023..128.95>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임진왜란시 조선수군의 승전요인

- 조선초기 왜란에 의한 조선수군 변화를 중심으로 -

박주미 | 목포해양대학교 해군사관학부 조교수

- 목 차
1. 서론
 2. 연구 분석틀
 3. 조선 초기 왜란
 4. 승전요인이 된 조선수군의 변화
 5. 결론

초 록 조선은 초기부터 수많은 왜란을 겪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했기에 '왜구는 육전에 약하고 수전에 강하다'란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실제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지상군과 달리 수군은 개전부터 연전연승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에 따라 조선수군의 승전요인을 분석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들 연구는 각각의 분야로 세분화되어 연구되면서 종합적인 이해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왜란이 조선수군에 미친 직접적 영향을 종합 분석하였다. 즉, 콜벳의 해양전략 이론의 분석틀을 통해 '조선 초기

왜란'에 따른 조선수군의 변화가 원인이 되어 임진왜란시 '조선수군의 승전'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음을 밝혔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막스 베버의 역사적 사회과학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는 새로운 사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조선의 우수성이 왜란이라는 실전에서 나온 결과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해 각 분야에서 별도로 진행되었던 연구 결과들을 해양전략 이론 분석틀을 통해 종합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건국 초부터 왜적 대응에 노력을 기울였던 조선은 자연스럽게 제해권 확보를 위한 수군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 물론 그 해양정책이 조선전기를 통해 일관되게 추진되었다고 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조선은 삼포왜란, 사랑진왜변, 을묘왜변, 손죽도왜변 등을 겪으며 자신의 해양력 수준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해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해전의 수단과 방법이 되는 조직체계, 군선과 화기, 해양전술 등을 개선 및 보완하여 임진왜란시 해전에서 강한 면모를 보여줄 수 있었다.

본 연구가 조선 초기 왜란과 조선수군의 변화라는 인과관계를 파악하고, 통섭적 관점에서 역사를 이해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 조선수군, 삼포왜란, 사랑진왜변, 을묘왜변, 손죽도왜변, 임진왜란, 줄리안 콜벳, 해양전략, 해양전술

(원고투고일 : 2023. 7. 5, 심사수정일 : 2023. 8. 11, 게재확정일 : 2023. 8. 29.)

1. 서 론

고려 말부터 심각한 피해를 주었던 왜구의 문제는 조선 개국 후에도 주요 관심사일 수밖에 없었다. 조선은 초기부터 수많은 왜란을 겪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만 했기에 ‘왜구는 육전에 약하고 수전에 강하다’란 의견이 지배적이었다.¹⁾ 그러나 실제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지상군은 패퇴를 거듭하다가 20일 만에 한양이 함락되었으나, 수군은 개전부터 연전연승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에 따라 조선수군의 승전요인을 분석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가 축적되었다. 임진왜란시 조선수군의 승전요인에 관한 이들 연구는 판옥선과 총통 등 조선의 우월한 군선과 무기체계, 조직과 지휘체계, 해양전략과 전술, 유능한 지휘관인 이순신 등을 공통으로 지목하며²⁾ 조선수군의 우수성을 입증하였다. 물론 조선수군이 임진왜란 당시 칠천량해전시 패배하였듯 모든 해전에서 승리한 것도 아니고³⁾, 명량해전 등에서 보듯

1) 이러한 당시의 지배적 인식에 대해서는 각주 45), 66), 67), 69), 83), 115) 등을 참고할 것.

2) 이만웅, 『이순신 평전』, 서울: 성안당, 2017, 452~459쪽; 재장명, 『이순신 백의종군』, 서울: 행복한 나무, 2011, 159~176쪽; 임원빈, 『이순신 방법을 논하다』, 서울: 신서원, 2005, 275~306쪽; 정진술 외, 『다시보는 한국해양사』, 서울: 신서원, 2008, 388~396쪽; 방상현, 『조선초기 수군제도』, 서울: 민족문화사, 1991, 179~197쪽; 신윤호, 「임진왜란 초기 해전을 통해 본 조·일 수군 비교」, 『한일군사문화연구』 제37호, 한일군사문화학회, 2023, 119~147쪽 등.

3) 임진왜란시 유사한 조건과 상황에서 조선수군이 승전과 패전이라는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된 요인에 관한 연구는 박주미, 「전투사례를 통해 본 정신전력의 중요성과 강화방안: 임진왜란 해전 사례를 중심으로」, 『정신전력연구』 제55호, 국방정신전력원, 2018, 39~75쪽; 이원희, 「정유재란기 칠천량해전의 패인 분석」, 『군사연구』 제91호, 육군군사연구소, 2015, 289~317쪽; 정완희 외, 「칠천량해전과 명량해전의 유형전투력 분석」, 『군사』 제91호,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14, 261~290쪽 등.

항상 객관적으로 우세한 상황에서 해전을 치른 것도 아니다. 하지만 임진왜란기 조선수군을 주제로 한 절대적 다수의 연구는 이순신이 이끈 조선수군은 참전한 해전에서 모두 의미 있는 승리를 거두었고, 그 요인은 ‘이순신’이라는 리더와 ‘조선수군의 우수성’임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⁴⁾

반면, 조선 초기 왜구와의 실전, 즉 삼포왜란, 사랑진왜변, 을묘왜변 등의 왜란에 관한 연구는 주로 당시 일본 혹은 대마도와 조선과의 대외관계⁵⁾ 혹은 지역 중심으로⁶⁾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15세기 조일관계는 양국 간의 제도 마련을 중심으로, 16세기 이후는 삼포왜란(1510)과 임신약조(1512), 사랑진왜변(1544)과 정미약조(1547), 을묘왜변(1555)과 정사약조(1557)를 중심으로 연구가 집중되었다.⁷⁾ 외교 분야와 지역, 국방 등 각각의 분야에서 ‘조선 초기 왜란’과 ‘조선수군의 우수성’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4) 고광섭은 조성도(충무공 이순신, 동원사, 1976), 최두환(충무공이순신 전집 1~6권, 도서출판 우석, 1999), 박종평(난중일기, 글항아리, 2018), 김주식(이순신: 옥포에서 노량까지, 교우미디어, 2015), 이만웅(임진왜란 이순신, 청어람 미디어, 2004), 제장명(이순신 백의종군, 행복한 나무, 2011) 등의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비록 임진왜란기 이순신의 조선 해군이 참가하여 승전을 거둔 해전 횟수가 45전, 26전, 23전 등으로 학자들의 기준에 따라 모두 다르지만, 이들 연구 모두 이순신이 이끈 조선 해군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고광섭, 『우리가 몰랐던 이순신』, 서울: 북코리아, 2021, 298~301/305쪽.

5) 김보한, 「고려·조선의 대일본 외교와 왜구: 13~15세기 금구 외교와 그 성과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제47집, 한일관계사학회, 2014 ; 심민정, 「삼포왜란의 발생원인과 대마도」, 『동북아문화연구』 제34호,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3 ; 이향배, 「삼포왜란후 모재 김안국의 대일외교 논리와 전략」, 『해양문화재』 15호,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21 ; 김덕진, 「1587년 손죽도 왜변과 임진왜란」, 『동북아역사논총』 29호, 동북아역사재단, 2010 등.

6) 정영석, 「조선 전기 호남의 왜변에 대하여-을묘왜변을 중심으로」, 『전통문화연구』 3, 조선대학교 전통문화연구소, 1994 ; 김기동, 「을묘왜변 전후 제주도의 방어 태세」, 『역사와실학』 제79집, 역사실학회, 1994 등.

7) 양홍숙, 「1541년 두 ‘왜변’ 과 ‘신축약조」, 『한일관계사연구』 제71호, 한일관계사학회, 2021, 286쪽.

조선수군의 우수성이 이들 왜란의 영향에 있었음을 밝힌 선행 연구도 축적되었다.⁸⁾ 이들 연구에 따르면 조선수군이 임진왜란 당시 승전할 수 있었던 원인은 조선 초기 수많은 왜란이라는 실전의 경험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들 연구는 군선⁹⁾과 무기체계¹⁰⁾, 수군편제와 지휘체계¹¹⁾, 해양전략과 전술¹²⁾, 지휘관 등 각각의 분야로 세분화되어 연구되면서 종합적인 이해에는 한계가 있다.¹³⁾

이에 본 연구는 왜란이 조선수군에 미친 직접적 영향을 종합 분석하고자 하였다. 즉, 콜벳의 해양전략 이론의 분석틀을 통해 ‘조선 초기 왜란’에 따른 조선수군의 변화가 원인이 되어 임진왜란시 ‘조선수군의 승전’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음을 밝힌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막스 베버(Max Weber, 1864-1920)의 역사적 사회과학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이 방법론은 특정 역사적 사례가 해당 시기와 사회의 특정한 결과물이지만, 동시에 사회과학의 연구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인정한다. 따라서 사회과

8) 이만웅, 『임진왜란 해전사』, 서울: 청어람미디어, 2014, 32~46쪽 ; 허선도, 「이조중기 화기의 발달(上)」, 『역사학보』 30권, 역사학회, 1966, 89~107쪽 ; 이만웅, 「조선전기(15~16세기)의 수군 변천」, 『이순신연구논총』 제14호,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2010, 1~18쪽 ; 신윤희, 「임진왜란 시기 전라도 수군의 편제와 운용」, 『역사학연구』 제72집, 호남사학회, 2018.

9) 김재근, 『조선왕조군선연구』, 서울: 한국문화연구소, 1976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전통선박 조선기술 VII: 판옥선 학술 복원 보고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21.

10) 허선도, 『조선시대 화약병기사연구』, 서울: 일조각, 1997 ; 김병륜, 「조선시대 수군 진형과 함재 무기 운용」, 『군사』 74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0, 139~177쪽.

11) 방상현(1991)

12) 이만웅(2010) ; 장학근, 「조선시대 해방사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1985 ; 한성일, 「16세기 조선 수군의 전술과 공수」, 『역사와 세계』 39권, 효원사학회, 2011.

13) 특히 2023.8.9. 기준 “조선수군 승전”, “우수성” 등을 단일 주제로 연구하여 KCI에 등재된 논문은 1건이다. 송은일, 「임진왜란 초기해전(初期海戰) 승첩(勝捷)을 주도한 전라좌수군의 동력」, 『호남학』 제59집,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16, 259~297쪽

학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역사적 사례의 인과관계를 밝히고, 현상을 이해하며 해석한다.¹⁴⁾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본 연구는 수많은 조선 초기 왜변 중에서도 조선수군의 변화에 직접적 영향을 주었던 왜란, 즉 삼포왜란, 사랑진왜변, 을묘왜변, 손죽도왜변으로 연구범위를 한정하였다. 수군의 변화라는 측면 역시 ‘조선 초기의 수군’이 분석 대상이고, 수군의 변화가 ‘임진왜란시’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해야 하기에 ‘조선 건국부터 임진왜란 직전까지의 수군 변화’로 범위를 한정하여 인과관계를 도출하였다.¹⁵⁾

본 연구는 새로운 사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조선의 우수성이 왜란이라는 실전에서 나온 결과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각 분야에서 별도로 진행되었던 연구 결과들을 해양전략 이론 분석틀을 통해 종합 분석하였다. 본 연구가 조선 초기 왜란과 조선수군의 변화라는 인과관계를 파악하고, 통섭적 관점에서 역사를 이해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14) 막스 베버의 역사적 사회과학 방법론은 비록 연구의 대상이 과거의 역사적 사실이라 할지라도 현재의 관점에서 이를 이해하고 분석하여 미래를 가정하고 대응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정한다. Max Weber, 김덕영 역, 『문화과학 및 사회과학의 논리와 방법론』, 서울: 도서출판 길, 2021, 285쪽.

15) 역사 연구란 원인에 관한 연구이다. 역사가는 무수한 인과적 전후 관계 중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것을 추출해낸다. 역사는 실체에 대한 인식적 지향의 ‘선택체계(selective system)’일 뿐만 아니라 ‘인과적 지향의 선택체계’이다. 끝없는 사실의 바다에서 역사적 중요성을 가르는 기준이 되는 것은 그 전후 관계를 자신의 합리적인 설명과 해석의 모형에 따라 판단하고 우연적인 것을 배제하는 역사가의 능력이다. E. H. Carr, 김택현 역, 『역사란 무엇인가』, 서울: 까치, 2014, 133/159~160쪽.

2. 연구 분석틀

해양전략가 콜벳은 그의 저서 『해양전략론』에서 해전이론을 목적과 수단, 방법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먼저 해전의 목적(object)이다. 콜벳은 마한과 같이 제해권(command of the sea) 확보를 목적으로 제시하였다. 그가 제시한 제해권은 마한과 다르게 일정한 기간, 제한된 지역에서의 자유로운 해양의 이용과 적의 사용 거부를 의미한다.¹⁶⁾ 그는 제해권 달성을 위해서는 필요한 장비들이 적절하게 고안되어야 하며, 적아의 세력 우세 여부에 따라 전쟁계획에서 공격과 방어가 결정된다고 하였다. 즉, 아측이 상대적으로 우세한 경우에는 결전(decision by battle), 봉쇄(blockade)를 통해서 제해권을 획득한다. 반면 상대적으로 아측이 불충분한 세력일 경우에는 현존함대(the fleet in being) 원칙과 소규모 대응공격(counter-attack)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¹⁷⁾

두 번째 해전의 수단(mean)이다. 해전에서 수단은 기본적으로 전투함으로 구성된 함대가 된다. 함정의 등급은 수행하여야 할

16) Julian S. Corbett, *Some Principles of Maritime Strategy*(Annapolis, Md: Naval Institute Press, 1988), pp.91~106. 마한의 제해권은 해양에서 적과 비교하여 절대적으로 압도적인 힘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John B. Hattendorf and Lynn C. Hattendorf, *A Bibliography of the Works of Alfred Thayer Mahan*(Newport, R.I.: Naval War College Press, 1986)

17) Corbett(1988), pp.165~166. 해전과 해양전략의 목표가 무엇인가에 따라 적극적, 소극적 해양전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마한식의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제해권 추구의 경우 적극적 해양전략으로, 대륙국가의 경우처럼 방어적 태세로 결전을 회피하거나 연기하여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고자 할 때는 소극적 해양전략으로 판단할 수 있다. 박주미, 「한국해군의 해양전략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2020, 88~90쪽.

기능에 따라 전문화되며, 임무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그에 맞는 함정과 충분한 숫자가 요구된다.¹⁸⁾ 콜벳은 “함대를 구성하는 함정의 등급(classes of ships)은 당대의 전략적, 기술적 개념의 실제적인 표현이고, 또한 그래야만 한다”¹⁹⁾고 말했다. 즉, 해전에서 함정은 특정 시대와 국가의 개념을 반영한 전쟁 도구²⁰⁾이기에, 해전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충분한 함정 척수와 훌륭한 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해전의 방법(method), 즉 세력의 집중(concentration)과 분산(dispersal)이다. 전쟁에서 집중은 과감하고 융통성 있는 전략적 결합(mass)에 의해 달성된다. 집중은 결전의 순간의 최대의 군사력을 투입할 수 있는 능력으로, 명확한 분산과 병행하여 유연하게 이루어진다. 콜벳에 따르면 세력의 분산(division) 없이 전략적 결합(strategical combination)은 있을 수 없으며, 특히 해양에서 작전은 지상에서보다 더 다양하고 유연한 조합이 가능하다.²¹⁾ 그는 두 개 이상의 세력은 자유롭게 결합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세력은 어떤 지점에서든 신속하게 집결할 수 있도록 전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콜벳의 분석틀에 따라 조선 초기 왜란에 의해 조선수군의 입장에서 해전의 목적, 수단, 방법이 어떻게 변화하여 임진왜란시 해전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지 고찰하였다. 첫째, 해전의 목적과 세력의 우세 여부에 따른 제해권 확보 방법이다. 둘째, 해전의 수단인 함대(전투함)의 함형, 무기체계 등의 전문성과 척수이다. 셋째, 해전의 방법, 즉 해양전략과 기술

18) Corbett(1988), pp.114~115.

19) Corbett(1988), p.107.

20) James R. Holmes, *A Brief Guide to Maritime Strategy*(Annapolis, Md: Naval Institute Press, 2019), p.82.

21) Corbett(1988), p.133.

의 분석이다. 이러한 분석들은 비록 분석 대상이 과거의 역사적 사실이지만, 현대 해군의 임무 달성 가능 여부를 가능케 하는 중요 지표인 ‘오늘날의 무기체계’를 분석하는 기준과도 일치하여 당시 수군의 승전요인을 파악하고, 나아가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²²⁾ 물론, 이 외에도 해전에서 지휘관의 요소 역시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지휘관, 즉 이순신에 관해서는 평전 등 수많은 연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그 부분을 제외한 승전요소를 분석하였다.

3. 조선 초기 왜란

일본은 헤이안 시대 이후 산업이 발달하고 화폐의 유통이 일어나며 빈부의 차가 커졌다. 무로마치 막부의 약화와 함께 사회 질서가 혼란해지며 해적이 횡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고려 말부터 지속된 왜구 문제²³⁾에 대해 조선은 개국 초부터 회유책과 강경책을 병행하였다. 대내적으로는 수군을 강화하였고, 대외적

22)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국방부훈령 제1707호) 제13조, 합동참모본부에서 발행한 합동무기체계의 정의, 미국 국방부 군사용어사전(JP 1-02) 등에 따르면 ‘해군의 무기체계’란 부여된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주 임무 무기와 이에 관련된 인력, 지원장비, 지원시설 및 정비기술, 군수지원, 그리고 전략, 전술, 교육훈련 등이 통합된 전체의 체계라고 정의할 수 있다. 김석곤 외, 『바다를 지배하는 힘, 해군무기의 세계』, 한티미디어, 2016, 10쪽.

23) 고려 멸망 주요 원인 중 하나였던 왜구 침입 문제는 고려 말기 더욱 심해졌는데, 특히 경상도와 전라도 연해 지방의 피해가 컸다. 이들은 주로 쌀과 콩 등을 약탈했지만, 지방민 납치도 적지 않았다. 정영석(1994), 2~3쪽. 조선 초기였던 태조 때 돌아온 포로의 수가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만도 2천여 명에 이를 정도로 그 피해가 심각하였다. 김용현, 「사랑진왜변과 퇴계 이황의 화친론」, 『퇴계학보』 제137집, 퇴계학연구원, 2015, 116쪽.

으로는 무역을 허락하였으며 필수품 제공 등을 통해 해적 금퇴를 요청했다. 태종의 왜구귀화정책과 세종의 대마도 정벌은 이러한 화전양면전술의 대표적 예였다.

조선은 왜선을 분명한 자에 대해서는 후한 상을 주고, 태만하거나 도피하는 자에 대해서는 군법회의를 통해 엄벌에 처했다. 세종 4년부터는 전라도와 충청도 연해를 오가는 사선은 반드시 병조의 항행허가증을 소지하도록 하였고, 생포된 왜구는 노비로 삼았으며, 불순자는 처단하였다. 동시에 태조가 즉위한 이후 선조 32년까지 약 69회에 걸쳐 일본에 사신을 파견하면서 일본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 하였다.²⁴⁾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 삼포를 개항하고 왜인들에게 통상을 허락한 것 역시 그와 같은 교린정책의 일환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왜구의 문제는 끊이지 않았다.

가. 삼포왜란(1510)

세종 8년(1426) 왜구로 인한 분란과 소요가 지속되자 왜선의 정박과 왜인의 거류를 웅천의 내이포, 동래의 부산포, 울산의 염포 등 3개의 포로 제한하였다. 하지만 선박과 인원이 불법적으로 증가하자 세종 25년 계해약조를 체결하여 대마도주에게 매년 미두 200석을 주고 그의 통제하에 50척의 세견선의 출입만을 허용하였다. 하지만 삼포에 거주하는 왜인은 급격하게 증가하여 1494년에는 525호 3,105인에 달했고²⁵⁾, 불법행위도 다시 기승을 부려 조선의 통제 수준을 벗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종 5년(1510) 4월 4일, 제포에 병선 100척과 무장한

24) 김용현(2015), 141~142쪽.

25) 심민정(2013), 79쪽.

왜인들이 나타나 성을 공격하였다. 동시에 부산포와 염포에서도 난이 일어나 부산 첨사 이우승을 죽이고 관가를 점령하는 한편, 272명의 군사와 백성을 살해하고, 800여 호에 달하는 민가를 불태워버렸다. 당시 왜인의 규모는 삼포의 거주하는 왜인 4~5천 명에 더해 대마도주가 수백 척의 병선에 승선시킨 인원들까지 포함하여 대규모였다. 이들은 모두 갑옷에 창검과 방패 등 완전무장한 상태로,²⁶⁾ 왜적에 의해 각 포의 병선은 모두 소각당했다.

그러나 당시 조선군은 본난을 진압하지도 못하였고, 반격에 나설 수도 없을 만큼 군선의 태세도 갖추어져 있지 못하였다. 잔적을 격퇴하면서도 소형경쾌선척(小型輕快船隻)으로 겨우 왜선 세 척만을 침몰시켰을 뿐이었다.²⁷⁾ 그 후 3개월이 지난 7월 13일 왜적이 다시 병선 3백 척으로 변성을 포위하고, 잡아간 변장도 놓아 보내지 않는 일이 발생했다.²⁸⁾ 하지만 조정은 이때 역시 적절히 대응할 수 없었다.

조정에서는 급히 유순정을 도원수로 삼고 5천여 명의 군대를 동원하여 15일 만에 이들을 진압하였다. 일본사신이 여러 번 오가면서 협상조건을 논의하는 가운데 삼포왜란은 종결되었다.²⁹⁾ 그리고 그 결과, 조선은 삼포개항 이래 최초로 대마도와 1년간 모든 교류를 단절하였다.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대마도는 일본 국왕을 통해 강화를 요청하였고, 조선은 일본 국왕이 보낸 사신 봉중의 중재로 삼포왜란의 주모자들을 처벌하는 등의 조건으로 1512년 임신약조³⁰⁾를 체결하였다.

26) 심민정(2013), 79쪽.

27) 『중종실록』 11권, 중종 5년 4월 22일 정미 1번째 기사.

28) 『중종실록』 11권, 중종 5년 7월 13일 정묘 4번째 기사.

29) 김재근(1976), 68쪽.

30) 왜선은 오직 제포 1항에 한해 25척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하였고, 대마도주에게 하사하는 세사미도 반감하여 매년 쌀 일 백석으로 하였으며, 기타 일체의 대우를 폐지하였다.

나. 사랑진왜변(1544)

중종 17년 5월 왜선 1척이 추자도에 나타났다.³¹⁾ 이후 6월에는 왜선 12척이 신달량을 침범하였으며³²⁾, 곧이어 10~15척이 초도·보길도·추자도 등지에 드나들었다.³³⁾ 중종 18년 5월에도 황해도 풍천 경내에 정박하고³⁴⁾, 곧 남도포 관할인 초도에도 나타났다.³⁵⁾ 침입 규모는 삼포왜란에 비해 크지 않았으나, 왜선의 크기가 커지고, 선상에 방패를 설치하는 등 선박의 구조도 개량되었으며, 총통을 쏘아서도 격파하기 힘들었다³⁶⁾는 점은 조선에게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³⁷⁾ 더구나 황해도는 방비가 없는 곳이였기에 이에 대한 대응은 시급한 문제였다. 이에 중종 18년 6월 조정에서는 의정부와 병조, 비변사의 변방 일을 잘 아는 재상 등이 모두 모여 군선에 대한 일대 논의가 이뤄졌다.³⁸⁾ 이들은 맹선이 조운 등에 필요하지만, 왜적에 대응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그 후 특별한 왜란은 없었으나, 중종 36년경부터 다시 왜적의 침입이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1550년 전후부터 왜적들이 명인들로부터 화포를 비롯한 각종 무기를 받고, 화약병기 기술을 습득하였기 때문이었다.³⁹⁾ 명종 7년 6월 왜적들이 제주도에 침범하였을 때는 이미 많은 탄환을 방사할 정도에 이르

31) 『중종실록』 45권, 중종 17년 6월 7일 임오 1번째 기사.

32) 『중종실록』 45권, 중종 17년 6월 11일 병술 1번째 기사.

33) 『중종실록』 45권, 중종 17년 6월 14일 기축 2번째 기사.

34) 『중종실록』 48권, 중종 18년 5월 27일 병신 4번째 기사.

35) 『중종실록』 48권, 중종 18년 6월 1일 경자 2번째 기사.

36) 『중종실록』 48권, 중종 18년 7월 6일 갑술 2번째 기사.

37) 김재근(1976), 69쪽.

38) 『중종실록』 48권, 중종 18년 6월 26일 을축 5번째 기사.

39) 허선도는 1500년 초부터 명 복건성 일대의 邊民들이 연안 각지에서 왜적과 함께 공동으로 해상약탈을 하며 왜적이 화약병기 기술을 습득할 수 있었다고 설명하였다. 허선도(1997), 176~177쪽.

렸다.⁴⁰⁾ 이에 명종 2년 조정에서는 명나라에게 이를 방지해달라고 요청⁴¹⁾하는 한편, 9년 12월에는 비변사에서 왜인의 총통에 대해 논의하였다.⁴²⁾

그러던 중 중종 39년(1544) 4월 12일 새벽 왜적이 사랑진을 공격하여 조선군 1명이 전사하고 10여 명이 다치는 사랑진왜변⁴³⁾이 일어났다.

경상도 우병사 김일(金軼)의 계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번 4월 12일 인시(寅時)에 사랑진(蛇梁鎭) 동쪽 어구에 왜선(倭船) 20여 척이 돌입하여 성을 포위하고 왜인(倭人) 2백여 명은 진의 뒤에서 성을 포위하였으므로 한참 동안 접전(接戰)했는데, 남쪽 모퉁이 웅성(壘城)이 무너졌습니다. 이때 만호(萬戶) 유태(柳澤)이 군관(軍官)을 거느리고 왜인 1명을 쏘아 죽여 머리를 벤 뒤 사시(巳時)에 적왜(賊倭)들이 후퇴하여 도망갔는데 바다가 어두워졌기 때문에 망을 보지 못하여 간 곳을 알 수 없었습니다. 수군(水軍) 1명이 칼에 맞아 죽었고, 10명은 화살을 맞아 상처를 입었으나 생존했습니다. (하략)."

사망자가 270여 명에 달했던 삼포왜란에 비해 그 피해가 크지 않았지만, 조정에서는 이 사건의 사후처리에 대한 논의가 한동안 지속되었다. 대대마도 정책을 재검토할 정도로 대마도의 중

40) 허선도(1997), 177쪽.

41) 영의정 윤인경, 우의정 정순봉이 아뢰기를, "복건(福建) 사람이 왜노(倭奴)와 내통하여 이미 병기(兵器)를 주고 또 화포(火炮)를 가르쳐 주었는데, 이것은 중국과 우리나라에 다 불리한 일입니다. 매번 주문(奏聞)하고자 하였으나 인편이 없었는데, 이번에 수적을 압송(押送)하게 되었으니,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하략)" 『명종실록』 5권, 명종 2년 4월 19일 경자 1번째 기사.

42) 『명종실록』 17권, 명종 9년 12월 18일 갑신 1번째 기사.

43) 『중종실록』 102권, 중종 39년 4월 17일 을유 3번째 기사.

주국으로서의 위신과 관계된 정치적 사안으로 해석하였기 때문이었다. 조정에서는 첫째, 조선이 왜인들에게 지나치게 후하게 대접해준 결과 그들이 오만방자해졌다는 것. 둘째, 이는 삼포왜란이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해 일어난 결과로, 그들에게 임신조약이 너무 약한 제약이었다는 인식. 셋째, 감히 왜인들이 군사적 위협으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려 했다는 것에 관한 분노. 넷째, 왜인에 대한 불신과 폄하 의식의 공유가 있었다.⁴⁴⁾

이에 따라 후속대책을 논의하는 1544년 4월 20일 조강에서는 번국이 종주국을 배신한 것이므로, 마땅히 대마도와 관계를 단절하고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⁴⁵⁾ 그러나 이후 5월 5일 이루어진 확대회의 자리에서는 현실적으로 외교 단절이 영원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들을 자극하여 더 큰 환란을 야기해서는 안된다는 신중론도 제기되었다. 결국, 논의 결과 1407년 왜구에게 개항된 이래 가장 번성한 왜관이었던 제포 왜관은 폐쇄되었고, 부산포 왜관만이 유일하게 남게 되었으며, 제포의 바로 앞에 위치한 가덕도에는 수군진이 설치되었다.⁴⁶⁾

윤은보·윤인경·윤임·이기·권벌·조운손·윤희평·성세창·정옥형·정순봉·장언량·신영이 의논드리기를, “가덕도(加德島)는 웅천(熊川) 지경 안에 있는데 본현(本縣)과의 거리가 2리 남짓하고, 근방에 안의포(安義浦)가 있으며 또한 제포(濟浦)·영등포(永登浦)·다대포(多大浦) 등의 포구가 모두 서로 바라보일 만한 지역에 있어, 무릇 위급한 일이 있으면 형

44) 김용현(2015), 114~116쪽.

45) 『중종실록』 102권, 중종 39년 4월 20일 무자 1번째 기사. 이날 특진관 강현은 왜인들이 육전에 약하기 때문에 성을 튼튼하게 하고 굳게 지키면 한두 해가 되지 않아 복종할 것이라는 인식을 드러냈다. 이러한 조정의 인식은 임신왜란에서 정반대의 결과로 나타났다.

46) 『중종실록』 103권, 중종 39년 5월 22일 기미 2번째 기사.

세가 차례차례 응원(應援)할 만한 곳이지 멀어서 구원하기 어려운 곳은 아닙니다. 사량(蛇梁)에 비하면 바다길이 멀지 않아 사람이 부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호각 소리도 들을 수 있으며, 삼면은 절벽이고 오직 한 면 만이 배를 들 수 있어 관방(關防)의 요지이고 제방을 마련하기도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략) 성(城)을 쌓고 진(鎭)을 설치하는 것이 진실로 편리하고 유익합니다.”

또한, 1547년 정미약조를 통해 ‘풍량이 순조롭지 않다는 핑계로 가덕도 서쪽에 와서 정박하는 자는 왜적으로 논한다’라는 조항 등으로 명문화⁴⁷⁾하여 제해권을 강화하였다.

대마도와의 약조는 다음과 같다. 1. 세견선(歲遣船) 25척 내에, 대선(大船)을 9척, 중선을 8척, 소선을 8척으로 하며, 각 배의 인원수가 본래의 수를 넘을 경우 유포량(留浦糧)을 각각 절반으로 줄인다. 도서(圖書)를 받거나 직첩을 받아 통래하는 배의 인원수도 역시 같다. 1. 배에서 쓸 짐물(什物)은 일체 지급하지 않는다. 1. 풍량이 순조롭지 않다는 핑계로 가덕도(加德島) 서쪽에 와서 정박하는 자는 왜적으로 논한다. 1. 50년 전에 도서를 받고 직첩을 받은 자는 임신년 약조의 예에 의하여 접대를 허락하지 않는다. 1. 밤에 담을 넘거나 담을 헐고 나가 여염집을 왕래하는 자, 삼소(三所)의 배를 타고 몰래 여러 섬을 다니는 자, 칩을 캔다고 핑계하고 산에 올라가 멋대로 돌아다니는 자 등은 영원히 그 배의 접대를 허락하지 않는다. 1. 모든 약속은 진장(鎭將)의 영(令)에 따르고 이를 위반하는 자는 무거우면 3년, 가벼우면 2년간 접대를 허락하지 않는다.⁴⁸⁾

47) 양홍숙(2021), 318쪽.

48) 『명종실록』 5권, 명종 2년 2월 13일 을미 1번째 기사.

다. 을묘왜변(1555)

16세기 들어 경제가 어려워지고, 국가 기강이 문란해지면서 국방태세가 해이해졌다. 가뭄과 흉년이 계속되어 명종 9년(1554) 전라도 고흥 지방의 경우 주민의 60% 이상이 아사할 정도였다. 1526년, 1530년, 1552년 등에는 전염병까지 유행하여 많은 인원이 죽었다. 백성들에게 군역의 부담은 가중되었고, 군역 담당자들의 부정과 비리는 심해져 군사의 질적 저하가 심해졌다.

이러한 때에 대마도주 종성장은 임신약조에 불만을 품고 삼포왜란 이전 수준의 세사미와 무역선 출입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조정에서는 세사미를 130석으로 올려주는 선에서 마무리하였다. 그러자 그는 명종 10년(1555년) 5월 왜선 60여 척을 이끌고 전라도 달랑진을 공격하고, 이어서 어란도, 마도, 가리포, 장흥, 강진 등 여러 곳을 함락했다.

왜구는 사전계획에 의해 전라도 병마절도사가 위치한 강진의 병영에서 직선거리 30km 이상 떨어진 달랑진을 공격, 육군이 신속히 지원할 수 없도록 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기만과 매복 등을 통해 지원군을 저지하고, 격멸하는 등 이전과 다른 전술적 우위의 모습을 보여주었다.⁴⁹⁾ 반면 조선군은 절도사 원적, 장흥 부사 한온 등이 대응 과정에서 전사하였다. 영암 군수 이덕견은 항복하여 포로가 되었으며, 수사 김빈과 광주 목사 이희손 등이 모두 패하여 도망쳤다.⁵⁰⁾ 당시 왜선은 크고 견고하여 조선군의 천·지자총통으로도 격파할 수 없었던 반면, 그들의 철환은 우리 병선의 참나무 방패도 관철할 수 있을 만큼 위력적이었다. 왜적은 이전과 달리 포를 쏘고 계획된 전술로 조선군을 포위하였다.

49) 문준호(2017), 215~220쪽.

50) 『명종실록』 18권, 명종 10년 5월 30일 계해 1번째 기사.

요사이 왜선(倭船)이 전라·경상·청흥·황해도에 나타나는데, 전라·청흥 두 도가 더욱 심하여 변보(邊報)가 끊이지 않는다. (중략) 그런데 적장이 탄 큰 배는 쳐부수지 못하고 우리나라 사람만 상하였으니 【이때 우리나라 사람으로 철환(鐵丸)에 맞아 즉사한 자가 있었다.】 불쌍하다. 이 배가 만약 어느 곳에 정박하여 상륙한다면 2백여 명이나 되는 왜적들이 틀림없이 해를 많이 끼칠 터이니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마땅히 온갖 조치를 다하여 기어이 포획하여야 할 것이다.⁵¹⁾

비변사 대신과 영부사가 함께 의논하여 아뢰기를, "(중략) 전라도 구조도(仇助島)에서 싸우다 도망간 배는 용(龍)을 그린 큰 기를 세웠고 철환을 잘 쏘았는데 기계(機械)가 보통이 아니었고 배의 모양도 특이하였다. 우리나라의 전선(戰船)을 만나도 조금도 놀라거나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이 닻을 내리고 응전하였다. 우수사 최희효(崔希孝)가 잡지 못하였고 군관(軍官)과 뱃사공이 또한 철환을 맞아 즉사하여, 적선이 서쪽 바다로 달아나 버리게 되었다. (중략) 적선이 크고 튼튼하여 천·지자(天地字) 총통을 쏘아도 쉽게 부서지지 아니하였으며 철환 역시 참나무 【상수리나무】 방패도 꿰뚫었다고 하는데, 나는 매우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믿어지지 않는다. (하략)"⁵²⁾

달랑포가 함락되었다는 소식에 조정에서는 급히 도순찰사와 방어사를 파견하였다. 그러나 실질적 책임자로 임명된 전라도 순찰사 이준경은 이 지역에 가본 적도 없었고, 현지 병력 충당도 어려워 서울에서 정병 모집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실정이었

51) 『명종실록』 25권, 명종 14년 6월 6일 병오 1번째 기사.

52) 『명종실록』 25권, 명종 14년 6월 6일 병오 2번째 기사.

다. 부족한 군량과 무기의 마련도 시급하였다. 범성포의 전세를 모두 모아 군량으로 삼고, 저자에서 철재를 사들이게 하였으며, 오래된 종으로 총통을 주조하자는 논의도 이어졌다. 동시에 여진족들에게 왜변 소식이 알려지지 않도록 유언비어를 차단하면서, 신상필벌로 군사들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여 시행하였다. 무기 보급을 위한 인력 동원, 전세 운반선을 통한 군량 지원, 병력충원을 위한 승군 동원 등도 조정에서 논의되었다.

이후 영암성으로 진출한 왜구의 공격은 전주 부윤 이준경과 군민들의 수비로 저지되었고, 잔여 왜구 천여 명은 제주도 방향으로 퇴각하였다. 제주목사 김수문은 왜구를 급습하여 54급을 베는 전과를 거두기도 하였다.⁵³⁾ 왜적은 물러갔으나 이는 조선의 대응이 효과적이었다기보다는 왜적의 활동무대가 주로 중국 연해였기 때문이었다.⁵⁴⁾ 그러나 을묘왜변의 피해는 상당히 컸는데, 건물 소실, 군량의 약탈, 포로 등은 물론 사망자도 510여 명에 이르러 삼포왜변의 두 배에 이르렀다.

을묘왜변의 피해가 컸기에 이후 조정에서는 왜구 대비책을 강화하게 되었다. 가장 먼저 삼포왜란으로 인해 임시 기관으로 설치되었던 비변사가 정규 상설기관으로 발족하여 국방 대책의 주요 기관이 되었다.⁵⁵⁾ 군제에 있어서도 명종 10년 감군어사를 혁

53) 『명종실록』 18권, 명종 10년 5월 18일 신해 3번째 기사 ; 『명종실록』 18권, 명종 10년 5월 19일 임자 3번째 기사.

54) 김재근(1976), 73쪽.

55) 조선왕조의 전시비상기구인 비변사는 조선의 국가 최고 의결기관이었다. 중종 5년(1510)의 삼포왜란이 일어나자 병조의 3개 구 외에 1개 구를 임시 증설하여 도체찰사의 종사관에게 지원 사무를 맡기면서 비변사라 이름하였다. 13대 명종 10년(1555) 을묘왜변이 일어난 후 정1품 아문인 정규 상설기관으로 발족하여, 임진왜란이 발발한 선조 25년(1592)에는 국가 권력의 최고 기관이 되었다. 26대 고종 2년(1861)에 폐지될 때까지 3백여 년 동안 군무와 정부를 맡아 처리하였다. 홍혁기, 「비변사의 조직과 역할에 대하여」, 『군사』 6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983, 247~248쪽.

파하고 평사를 설치하였으며, 경상·전라 및 경기지역에 축성하였다. 성을 지키기 어려운 곳에 있었던 가리포진은 폐쇄하였다. 영남과 호남에 내금위가 설치되었고, 변란에 대비하여 무과 선발 인원도 200인으로 확대되었다. 구체적인 군마양성 방법도 결정되었고, 을묘왜란시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군량 비축과 무기 제작의 조치도 취해졌다. 군령 체계에도 변화를 주어 전라도와 경상도에는 변란에도 조정에서 순찰사와 방어사를 보내지 않고, 관찰사가 현지에서 순찰사의 소임을 겸하게 하여 병사는 육군을, 수사는 수군을 이끌고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라. 손죽도왜변(1587)

임진왜란이 있기 5년 전인 선조 20년(1587) 봄, 왜선 두어 척이 전라도 녹도진 앞바다에 침범했다. 당시 녹도 권관이었던 이대원은 급히 출동하여 왜선을 막았다. 왜적은 선발대가 녹도진 상륙에 실패하자 며칠 뒤 천 명 이상이 승선할 수 있는 18척의 왜선으로 손죽도(전남 여수)를 침범하여 점령하였다. 이전에도 왜구가 이 지역을 침범한 일은 있었으나, 손죽도왜변은 성능이 뛰어난 조총과 총통으로 중무장한 채 대대적으로 침범하였다는 점에서 이전과 완전히 달랐다.

전라좌수사인 심암의 지휘 아래 1영(좌수영), 5관(광양, 순천, 풍양, 낙안, 보성), 5포(녹도, 발포, 사도, 여도, 방답)의 전라좌수군이 모두 출동하였다.⁵⁶⁾ 최전방에 있던 녹도 권관 이대원은 3일간 해상에서 수하 군사 100여 명과 전면전을 펼치며 대응하였다. 그러나 각 진포의 수군장들은 멀리서 관망하고 진격하지 않았고, 결국 이대원은 화력과 세력의 열세로 끝내 전사하였다.

56) 김택진(2010), 275쪽.

전라좌수군을 격퇴한 왜적은 손죽도에 이어 죽산도와 마도진, 가리포진까지 공격하였고, 전라우수군까지 전멸시킨 후 5~6일 만에 돌아갔다. 조정에서는 급히 전라도 순찰사로 김명원을, 방어사로 신립 등을 임명하여 파견하였으나 이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왜구가 철수한 후였다.

손죽도왜변은 이대원을 제외한 모든 조선 장수들이 도망쳤고, 그 결과로 수많은 양민이 살상하였으며, 조선의 대응 성과가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참혹한 패배였다. 특히 현장의 최고 지휘관이었던 심암은 패전에 더하여 처벌이 두려워 적의 위세를 거짓으로 보고하기까지 하였다. 정부의 대응에 혼선을 주었던 그는 결국 당고개에서 효수되었다. 이 외에도 복병선 5척이 피침하였으나 따라가 잡지 않았던 전라우수사 원호는 국문을 당했고, 순천에서 소식을 듣고 도망친 전라 감사 한준은 파직당하는 등 많은 이들이 손죽도왜변과 관련하여 처벌받았다. 반면 손죽도왜변에서 용감하게 싸우다 순직한 이대원은 제사와 사우건립, 추모가 제작 등 백성들에게 영웅으로 추앙받았다.⁵⁷⁾

계속된 실전 이후 정착된 엄격한 신상필벌과 엄정한 군기의 강조는 조선수군의 조직문화가 되었다. 이순신이 전라좌수사로 부임하기 4년 전인 1587년 신임 전라좌수사 이천이 수군의 합동 훈련을 위해 제장을 소집했는데, 늦게 도착한 이들이 발생했다. 이천이 이들을 장벌하는 과정에서 보성 군수 이흠이 즉사하고 많은 사람이 사망하였다.⁵⁸⁾ 그러나 지체 사유를 밝힌 공문을 제출한 인원도 임의 처벌하였음이 밝혀져, 이천은 '상관의 명령을 무시한 죄목'으로 곤장 80대를 맞는 등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⁵⁹⁾

57) 김덕진(2010), 279~281쪽.

58) 『선조실록』 21권, 선조 20년 6월 1일 기미 2번째 기사.

59) 이민웅(2017), 71쪽.

전라도 좌수사(全羅道左水使) 이천이 수도할 일 때문에 제장(諸將)들을 모아 바다로 나갔다. 그런데 기약한 날짜에 오지 못했다는 것을 이유로 순천 부사 성응길(成應吉), 보성 군수 이흘(李屹), 낙안 군수 김대기(金大器), 홍양 현감 김의일(金毅一) 등에게 차등있게 장형(杖刑)을 집행하였는데, 흘이 장하(杖下)에서 죽었다. 감사 한준(韓準)은 그 연유를 아뢰며 ‘천(薦)의 당초 약속이 분명치 않았고 적과 대치한 것도 아닌데 몇대로 당상관(堂上官)에게 곤장을 쳤으며 또 큰 곤장을 남용했으니, 치죄(治罪)하여 위엄을 보이소서.’ 하였다. 상이 ‘대장(大將)은 추고할 수 없다.’고 하여 추고하지 못했는데 (중략) 한준과 교대한 신임 감사 윤두수(尹斗壽)는 부임하는 즉시 천의 우후(虞候) 이복윤(李福允)과 군관 김대이(金大頤)를 잡아들여 천이 전일에 형장을 과도하게 쓴 실책을 가지고 이들에게 형벌을 집행한 뒤 돌려보냈다. (중략) 비변사가 천을 체직하고 박선(朴宣)을 좌수사로 삼으라고 아뢰었고, 천도 두수가 이미 지난 일을 소급해 허물삼아 우후와 군관에게 장형을 가하기를 사사로운 원수같이 했다고 그 잘못을 지적하여 사표를 올렸다.⁶⁰⁾

임진왜란 당시에도 조선수군의 첫 출전 하루 전의 처형⁶¹⁾을 포함하여 도망자가 발생할 경우마다 예외 없이 이순신이 사형을 집행했던 것이나, 부하를 질책할 때 군법을 언급하는 것⁶²⁾ 등은

60) 『선조실록』 21권, 선조 20년 7월 24일 신해 1번째 기사.

61) 『난중일기』 1592년 5월 3일자(12일, 임술) 일기

62) “낙안 군수는 피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듯했다. 그러나 군법이 있으니, 비록 물러나 피하려고 해도 그렇게 할 수 있겠나.” 『난중일기』 1592년 5월 2일자(11일, 신유) ; “나는 배 위에 서서 직접 안위를 불러 말하기를, ‘안위야, 군법에 죽고 싶느냐? 안위야! 군법에 죽고 싶느냐? 도망간들 어디서 살 수 있겠느냐?’ (중략) 또 김응함을 불러 말하기를 ‘너는 중군인데도 멀리 피해 대장을 구하지 않는구나. 그 죄를 어찌 벗을 수 있겠느냐? 처형하고 싶으나 적의 상황이 또한 급하니, 먼저 공이라도 세워라!’ ” 『난중일기』 1597년 9월 16일자(26일, 갑진).

이러한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동시에 『난중일기』, 『임진장초』 등을 확인할 수 있듯, 해전에서 공을 세운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장계 등의 보고계통을 통해 승진 혹은 상을 받도록 천거하여 신상필벌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조정은 손죽도왜변 이후 전라도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방어태세를 강화하였다.⁶³⁾ 비변사에 명해 죄가 있는 자라도 쓸만한 무사가 있다면 기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⁶⁴⁾ 비변사에서 무신을 불차채용하면서 많은 무신을 천거토록 하였다. 이순신도 이때 이산해가 추천한 명단에 올라 있었다.⁶⁵⁾ 이순신은 당시에는 파격적인 진급으로 대간들의 반대에 직면해 임명되지 못했지만, 왜적의 침입 우려가 커지면서 유성룡의 천거에 따라 1591년 2월 전라좌수사에 임명되었다.

4. 승전요인이 된 조선수군의 변화

가. 해전의 목적: 해양전략

조선은 건국 초부터 태종이 왜구의 근거지였던 대마도 정벌을 주도적으로 계획하여 세종 1년(1419)에 추진할 만큼 수군 강화에 노력하였다. 다음 장에서 살펴볼 군선, 화기, 조직체계 정비와

63) 김덕진은 이러한 조치 덕분에 임진왜란 당시 전라수군이 중심이 되었고, 김천일(나주), 안영(남원), 유팽로(옥과), 조현(충청도) 등 호남의병이 개전 초기에 거병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김덕진(2010), 302쪽.

64) 죄폐(罪廢) 중에 있는 쓸 만한 무사(武士)를 초계(抄啓) 서용하게 하였는데, 군율(軍律)·장람(贓監)을 범하였거나 기망(欺罔)한 죄를 범하였던 자가 서용되었고, 성적이 하등에 있던 자도 여기에 참여하게 되었다.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3월 26일 기유 2번째 기사.

65)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1월 21일 기사 1번째 기사.

인원 확충 등도 이 시기에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15세기 후반부터 16세기 초에 이르러 전체적으로 국방체제가 약해지면서 해양전략 역시 변화를 맞았다. 수전이 강한 일본을 육지에서 제압하자는 ‘방왜육전론’이 조정에서 논의된 것과 같이 제해권 확보에 대한 인식이 감소하기도 하였다. 결국, 조선시대 초기 해양전략에 대해서는 ‘해양력 강화를 위해 일관적으로 노력했다’고 할 수는 없다.

호남·영남의 성읍을 수축하였다. 비변사가, 왜적은 수전에 강하지만 육지에 오르면 불리하다는 것으로 오로지 육지의 방어에 힘쓰기를 청하니, 이에 호남·영남의 큰 읍성을 증축하고 수리하게 하였다.⁶⁶⁾

저 왜인들의 장기(長技)는 단지 물 위에서뿐이고 육로(陸路)에서는 장기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들의 장기와는 다투지 않고 성을 튼튼하게 하고서 굳게 지킨다면, 한갓 해양(海洋)사이에 출몰하여 양식을 가지고 멀리 왔을 뿐 아니라 사세가 스스로 피폐해져 한두 해가 되지 않아서 장차 복종하기를 애걸할 겨를도 없게 되고 다시는 나쁜 짓 하는 일도 없게 될 것입니다.⁶⁷⁾

海道(海道)의 주사(舟師)를 없애고 장사(將士)들은 육지에 올라와 전수하도록 명하였는데, 전라 수사 이순신(李舜臣)이 급히 아뢰기를, “수륙(水陸)의 전투와 수비 중 어느 하나도 없에서는 안 됩니다.” 하였으므로 호남의 주사만은 온전하게 되었다.⁶⁸⁾

66) 『선조수정실록』 25권, 선조 24년 7월 1일 갑자 6번째 기사.

67) 『중종실록』 102권, 중종 39년 4월 20일 무자 1번째 기사.

68) 『선조수정실록』 26권, 선조 25년 4월 14일 계묘 15번째 기사.

왜적이 수륙(水陸)으로 한꺼번에 나올 경우 수군이 막지 못한다면 일은 더욱 위태롭습니다. 대체로 왜적이 해전에 익숙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다만 그들의 배가 멀리서 왔고 선제(船制)가 견고하고 장대(壯大)하지 못하여 그 위에 대포를 안치할 수 없어서 우리나라 배에 제압된 것입니다.⁶⁹⁾

하지만 반복되었던 왜란이라는 실전을 통해서 조선수군은 해양력의 상대적 열세를 피부로 깨달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교훈을 통해 우세한 조건에서 왜적과 결전할 수 있도록 해전의 수단과 방법을 보완, 발전시켜나갔다. 해전의 수단 즉, 판옥선 개발과 천·지·현·황자 총통 등 화기개발, 수군의 조직체계 정비 등 수군의 전력을 강화하였다. 또한, 해전의 방법 즉, 학익진, 『수조규식』 등과 같은 조선수군에 적합한 해양전술의 적용으로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의 제해권을 확보하여 왜적의 사용을 거부하였다. 구체적 수군 변화는 해전의 수단과 방법에서 설명하였다.

나. 해전의 수단: 조직체계, 군선, 화기

1) 수군의 조직체계

조선은 건국하며 병제 제도를 고려에서 계승하여 재편성했다. 이 중 수군은 수군절도사, 수군첨절제사, 수군우후, 수군만호가 있었는데, 임진왜란 중 이순신이 경상·전라·충정 3도의 수군을 통솔하도록 삼도수군통제사(三道水軍統制使) 직이 신설되었다. 세조대에 편찬된 『경국대전』에 의하면 수군은 당시 국가 전체 군역인 11만 명의 절반에 해당하는 4만 8,800명으로, 세조 때부터 세습시켜 다른 역을 면제하였다.

69) 『선조실록』 61권, 선조 28년 3월 18일 신묘 4번째 기사.

수군은 원칙적으로 각 도의 관찰사와 도원수의 지휘를 받았으나, 해도찰방이라는 국왕직속의 감독감이 수시로 감시했고, 해적이 대거 침략할 경우에는 해당 도의 관찰사가 순찰사를 겸해 병사와 수사를 신속히 동원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⁷⁰⁾ 비록 중종 17년(1522) 병사가 수사를 겸하는 제도는 사라졌지만, 중종 18년(1523) 심의손이 병선과 포작선 12척에 수군 이외에도 효용군(驍勇軍) 1백여 명을 분승시켜 왜적에 대응한 것⁷¹⁾을 통해 이후에도 수군과 육군의 공조가 진행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 후 명종 10년(1555) 을묘왜변 이부터는 전라감사 유희춘의 장계대로 각 연해지구의 경비는 관찰사 지휘 아래 수륙 공동으로 상호 협조하여 출전하는 제송방략을 확립하였다.⁷²⁾

특히 임진왜란시 수군의 군정기구는 3남 각 연해의 행정기구와 완벽히 일치하여 첨사, 만호, 현감, 군수 등이 평시 업무를 보다가도 전시가 되면 상호 협동하여 수군과 함께 승선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⁷³⁾ 또한, 각 수영에는 수십 리 거리 봉우리에 봉수소(烽燧所)를 두어 위급경보를 신속히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왜란 중에는 인원 확보를 위해 추가 방안도 강구하였다. 내금위 등 금군(禁軍)의 정원을 증가시켜 삼포왜란과 을묘왜란에 상당수의 금군을 파견하였고⁷⁴⁾, 한량 등 무재있는 자들을 삼포왜란, 을묘왜변 등에 동원하였다. 16세기 중엽의 『절제방략』을 통

70) 정진술 외(2008), 264쪽.

71) 『중종실록』 48권, 중종 18년 6월 26일 을축 2번째 기사.

72) 신윤호(2018), 71쪽.

73) 임진왜란시 실제로 이 체제가 실행되어 수군 소속이었던 전라도 연해지역의 15고을이 모두 해전 수행으로 행정업무가 어려웠음을 보여주는 기록이 있다. 제송방략에 따라 해상방어가 강화되어 수군진과 연해제읍 수군들은 전시 수사의 지휘하에 활동하였다. 『선조수정실록』 25권, 선조 24년 10월 1일 기사 2번째 기사.

74) 한성일(2011), 145~146쪽.

해서 각 도의 무재있는 이들이 유사시 각 지역으로 달려가 방수 하도록 하였다.

삼공(三公)에게 전교하기를, “지금 변보(邊報)를 보니 적의 형세가 크게 치성하여 비어(備禦)하는 계책을 속히 도모하지 않을 수 없다. 외방의 한산(閑散)한 자로서 무재가 있는 자와 한량(閑良)으로서 유명한 자, 무과 초시(初試)에 입격한 자는 아울러 다시 그 재주를 시험하지 말고 모두 전장(戰場)으로 나아가는 유(類)에 등록하고, 또 장수에 합당한 자를 택하되, 상중에 있는 자와 바야흐로 죄의 견책을 입은 자도 선발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하라.”⁷⁵⁾

“(중략) 변장은 적임자를 구해야 합니다. 서울 안의 금군(禁軍)은 모두 5백여 명인데 80여 명이 이번에 싸움터로 나가 서울 안의 금위(禁衛)가 매우 허술하니 내금위(內禁衛)의 가예차(假預差)를 구전(口傳)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⁷⁶⁾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16세기 들어 국역체제(國役體制)의 해체가 가속화되며 큰 성과를 보지는 못했다. 피역 혹은 면역, 혈역 투속하는 사족층이 증가하여 상민층이 대체로 충군 되면서 국방의 전력 약화가 심해졌기 때문이었다. 명종 18년(1563)에는 수년간에 걸친 균적작업을 최종적으로 포기할 정도⁷⁷⁾였고, 그 결과는 임진왜란 초기 관군의 궤멸 현상으로 나타났다.⁷⁸⁾ 이는 조선수군에게도 역시 해당하는 사안으로, 임진왜란시 이순신이 가

75) 『중종실록』 11권, 중종 5년 4월 11일 병신 3번째 기사.

76) 『명종실록』 18권, 명종 10년 5월 18일 신해 3번째 기사.

77) 『명종실록』 29권, 명종 18년 8월 4일 경술 3번째 기사.

78) 김성우, 「16세기 중반 국가의 균역 동원방식과 성주 사족층의 대응」, 『조선시대사학보』 18권, 조선시대사학회, 2001, 103~131쪽.

장 어려워했던 문제이기도 하였다.⁷⁹⁾ 하지만 조선수군은 조선 초기 왜란이라는 실전을 통해 제도를 정비해 두었기에 육군에 비해서는 다소 안정적으로 병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경상도 관찰사 김신원(金信元)이 장계하였다. “지난번 신의 장계에 ‘도내(道內)의 바닷가에 위치한 12고을을 주사(舟師)에 소속시켜 변란을 들으면 즉시 바다로 달려가게 한다는 제도는 진실로 좋다. 다만 평시에는 연해 지방(沿海地方)에 백성과 산업이 번성하였으므로, 적병의 침략이 있으면 병력을 나누어 바다로 달려가 구원할 수도 있고 본읍에서 성을 지킬 수도 있었다. (중략) 그런데 그 얼마되지 않는 백성들을 모두 끌어다가 각각 배에 태워 바다로 달려 보낸다면 육지의 외로운 성을 누구와 더불어 지키겠는가. (중략) 그런데 지금은 연해 각 고을의 수령과 군민(軍民)들을 모두 주사(舟師)에 소속시키고 육지의 방어는 다시 고려하지 않으니 매우 허술하다 하겠다. 가령 변이 생긴 뒤에 육장(陸將)이 거느린 5~6척의 전선(戰船)이 앞서 거니 뒤서거니 하여 바다까지 추격한다 하더라도 어찌 적봉(賊鋒)을 다 물리쳐서 하륙(下陸)하지 못하게 할 수 있겠는가.(하략)”⁸⁰⁾

2) 군선

조선은 건국 초부터 왜구 격퇴를 목적으로 조선술과 항해술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태조 2년(1393)에는 중국인에게 당선(唐船)을 만들게 하였고, 태종 13년(1413)에는 해적에서 귀화한 왜

79) 임진왜란 중 조선수군 현황과 병력충원 방법에 대해서는 박주미, 「임진왜란 시기 조선수군 사례를 통한 해군병력 충원방안 고찰」, 『한국군사학논집』 78권 2호,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2022를 참고할 것.

80) 『선조실록』 132권, 선조 33년 12월 10일 기묘 4번째 기사.

인 평도전에게 일본 배를 만들도록 하였다. 또 같은 해 2월 귀선과 왜선으로 실전과 같이 연습하였고, 세종 5년(1423) 소형 쾌속선인 비거도선을 만들어 일본해적에 대응토록 하였다. 세종 12년(1430)에는 일본 배나 유구 배를 모방하여 조선하고, 세종 16년(1434)에는 한강에 이들 병선의 성능을 시험하였다. 성종 때에는 신속주의 건의대로 조선(漕船) 겸용의 병선을 만들고 일본 배와 제주 배를 한강에서 비교 시험했다. 중종 8년(1513)에는 왜적의 전술인 등선육박전(登船肉薄戰)을 막기 위해 선창에 검과 창을 조밀하게 세운 겸선을 만들었고, 명종 8년(1553)에는 새로 만든 윤선을 시험했다.

선종(船種)은 시대에 따라 명칭이 달랐으나, 『경국대전』에 따르면 조선 초기에는 대·중·소 3종의 맹선(猛船)이 있었다. 대맹선은 80척(16%), 중·소맹선이 408척(84%)을 차지하여 조선 초기 군선은 왜선 추격에 용이한 기동성을 중요시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⁸¹⁾ 군선은 중앙의 통제 아래 규격화되었고, 승선 인원과 탑재 무기도 통일되었다.⁸²⁾

그러나 앞서 삼포왜란에서 본 바대로 성능이 개량된 왜선에 맞서 맹선은 무용지물이었고, 중종 말엽 군사적 가치를 완전히 상실하였다.

고형산(高荊山)은 아뢰기를, “(중략) 황해도·평안도의 병선은 경쾌하지 못하여 쓸 수가 없습니다. 경상도·전라도는 비록 맹선이 있으나 모두 방치하고 사용하지 않으므로 육

81) 육군군사연구소, 『한국군사사 5: 조선전기 1』, 서울: 경인문화사, 2012, 424쪽. 이후 『이충무공전서』에 의하면 임진왜란 당시에는 판옥선, 협선, 포작선의 3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진술 외(2008), 266~267쪽. 대선은 길이 7칸 폭 3칸 9척 이상의 승선인원 80인, 중선은 길이 5칸 폭 2칸 1척 이상의 승선인원 60인, 소선은 길이가 3칸 1척 8촌 폭이 1칸 3촌 이상의 승선인원 30인이었다.

82) 이민웅(2014), 38쪽.

지에 매여진 채 부패하여 썩을 뿐이요, 늘 사용하는 것은 바로 비거도선(鼻居刀船)입니다. 그러나 맹선을 설치한 것은 진실로 우연한 일이 아닌 것으로 우리나라의 조운(漕運)에는 모두 맹선을 사용하고 있으니 일체 폐할 수는 없습니다. (중략) 이사균(李思鈞)은 아뢰기를, “왜변(倭變)은 예로부터 있어 온 일로 3등급의 맹선(猛船)을 설치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이를 설치한 뜻은 반드시 저들의 배는 작고 우리 배가 크면 저 왜적이 감히 뛰어오를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 일체 추포(追捕)하는 일을 위주로 한다면 과연 작은 배를 써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맹선을 일체 폐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중략) 대저 왜인은 본디 배 조종하는 것을 장기(長技)로 삼고 있으므로 비록 고기잡는 배라 할지라도 반드시 기병(旗屏)을 설치하고서 다니는데, 우리나라의 변장이 그것을 보면 곧 침구하여 온 것이라 여겨 정신없이 우왕좌왕하면서 조정에 치보(馳報)하면, 조정 또한 경동(驚動)하여 조방장(助防將)과 금군(禁軍)을 보내기도 하므로 매우 소요(騷擾)스럽습니다.”⁸³⁾

위와 같이 조정에서도 이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성종 이후 수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현실적 문제 등과 결부되어 소형쾌속선에만 의지⁸⁴⁾하고 맹선은 개량하지 않았다. 그 결과로 조선은 사랑포왜변과 을묘왜변에서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⁸⁵⁾ 다행히 중종 10년대에 참찬관 서후(徐厚) 등에 의해 선체가 커진 왜선에 대응하기 위한 대선의 필요성이 강조⁸⁶⁾되며 새로운 군선이 개발될 수 있었다.

83) 『중종실록』 48권, 중종 18년 6월 26일 을축 5번째 기사.

84) 한성일(2011), 112쪽.

85) 김재근(1976), 82쪽.

86) 『중종실록』 42권, 중종 16년 5월 7일 무오 1번째 기사.

남방(南方)의 전함(戰艦)은 옛날부터 두어 오는 것인데, 지금은 대맹선(大猛船)을 쓸데없다 하여 다 버리고 소선(小船)만 쓰고 있습니다. 소선이 다른 배를 쫓기에는 빠르지만 육박하여 싸우는 데는 적합하지 않으며, 또 전사(戰士)를 많이 태우지 못하고 적군이 기어오르기도 쉽습니다. 만일 한 적(賊)이 칼을 빼어들고 돌입하면 맹사(猛士)가 많더라도 당해낼 수 없습니다. 대함(大艦)은 높고 가팔라서 기어오르기는 어렵게 되었고 내려다보며 제어(制御)하기에는 편리합니다.

그렇게 사랑진왜변과 을묘왜변 이후 개발된 군선이 판옥선이 다. 중종 39년(1544) 판중추부사 송흠(宋欽)이 상소에서 건의⁸⁷⁾한 이후 명종 10년(1555) 9월 시험⁸⁸⁾하였고, 명종 10년과 11년 을묘왜변을 전후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건조되었다. ‘판옥선’이라는 명칭 자체는 명종 12년 4월에 대포에서 표류된 판옥선이 강원도에서 발견되었다며 처음 등장한다.⁸⁹⁾ 이후 명종 21년(1566) 대신과 비변사가 의논하여 척수를 조정하였다는 기록이 남아있다.⁹⁰⁾ 명종은 8년, 10년, 14년 등 단시일 내 세 번이나 직접 배

87) “듣건대 그 배는 단단하기가 여느 것과 달라서 사면에 다 널빤지로 집을 만들고 또 가운데가 넓어서 1백여 인을 포용할 만하며 그 밖의 기계(器械)도 정비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므로, 가는 데마다 대적할 자가 없고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것과 달라서, 연변(沿邊)의 요해지(要害地)에 전함을 갖춘 것이 별로 없고, 공사(公私)의 배가 많이 있기는 하나 거의 다 좁고 사면에 다 허술하여 가려 막은 것이 없으며, 또 화포는 오래되고 화약의 힘은 효력이 없으므로, 저 중국 사람의 화포에 비하면 참으로 아이들 장난입니다. 그 밖의 기계도 다 잔폐(殘弊)하여 연마되지 않았으니, (중략) 배를 만들 때에는 반드시 널빤지로 장벽을 만들어 모두 당인의 배와 같이 해야 합니다.” 『중종실록』 104권, 중종 39년 9월 8일 갑진 5번째 기사.

88) 『명종실록』 19권, 명종 10년 9월 16일 무신 1번째 기사.

89) 『명종실록』 22권, 명종 12년 4월 23일 병오 3번째 기사.

90) “각저 진·포(鎭浦)의 판옥선(板屋船)은, 처음 설치할 때 그 수효가 많았는데 그 뒤에 점차 줄여 지금은 맹선(猛船)을 약제(略除)하고 판옥선으로 《대전(大典)》에

를 시험하며 새로운 군선 건조에 관심을 기울였다.⁹¹⁾ 명종은 특히 전선 건조와 총통 제작에 우선순위를 두었고, 그 결과 명종 21년경 판옥선은 대맹선을 대체하여 80척 정도를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⁹²⁾

판옥선은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 “판자로 지은 집”으로 평선 위에 방패판을 두르고 상갑판을 추가로 얹은 배를 뜻한다. 왜선에 대응할 수 있도록 2층 구조로 고안되어 견고성과 기동성을 갖추었다. 판옥선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었다. 첫째, 80명이 정원인 대맹선보다 2배 이상의 인원(180~220명)을 승선시켜 기동성을 높이고, 화력을 집중할 수 있었다. 또한, 전투원과 비전투원을 위·아래로 분리하여 격군을 보호하여 전투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둘째, 천·지·현·황자 총통이 양현에 각각 4문씩, 선두 좌우에 각 1문씩 배치되어 있어 어느 쪽으로도 방포할 수 있었다. 특히 판옥선은 선체의 밑바닥이 평평한 평저선이어서 뱃머리를 선회하기가 용이하였기 때문에 총통 발사시 조준 및 사격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었다.⁹³⁾ 셋째, 전투원들이 적보다 높은 위치에서 내려다보며 전투할 수 있었고, 포의 위치가 높아

기재된 맹선의 수효를 채우고 있습니다. 또한, 옛날에는 적왜(賊倭)가 다 평선(平船)을 타고 왔으므로 우리나라에서도 평선을 사용하여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적왜가 다 판옥선을 이용하고 있으니 부득이 판옥선을 사용해야 서로 맞설 수 있으므로 더할 수도 줄일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대전》에 기재되지 않은 각처의 판옥선은 민력이 많이 소요되고 폐단 또한 적지 않아서 그 중에 신·구의 것을 분별하고 다시 수효를 줄였는데, 지금 줄인 각처 선척의 수효를 서계하겠습니다.” 『명종실록』 32권, 명종 21년 3월 13일 갑진 3번째 기사.

91) 김재근(1976), 87쪽.

92) 김재근(1976), 90쪽.

93) 평저선(平底船)은 바다가 뾰족한 첨저선(尖底船)보다 물속에 잠기는 흘수가 얕아 선회하기가 용이하다. 정진술, 「임진왜란 해전에서 조선수군의 승리의 원인과 역사적 의의」, 『학예지』19,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2012; 신윤호(2023), 134쪽에서 재인용.

포격전에도 유리했다. 넷째, 무엇보다 크기가 크고 단단하여 왜적의 전술인 등선육박전을 막을 수 있었다.⁹⁴⁾

또 다른 조선수군의 군선으로는 거북선이 있다. 거북선은 비록 임진왜란 당시의 기록은 자세히 남아있지 않으나, 약 200년이 지난 후 정조대에 정리된 “이충무공전서” 책머리에 기록된 통제영귀선과 전라좌수영귀선의 귀선도를 통해 추정, 연구되고 있다. 최초 기록은 태종 13년(1413) 실록에 “임진강에 나아가서 거북선과 왜선을 서로 싸우게 했다”는 기록이 보이고, 이후 1415년 7월 좌대언 탁신의 상서 내용 중 ‘거북선의 전법은 승전의 양책으로 (중략) 승전의 우수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보아 조선 초기부터 개발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1592년 3월 27일 『난중일기』에는 이순신이 거북선에서 포를 쏘는 것을 시험했고, 4월 11일에는 거북선에 쓸 배로 만든 돛을 만들기 시작했으며, 4월 12일에는 거북선에서 지자와 현자의 포를 쏘았다는 기록이 있다. 이후 거북선은 『임진장초』의 ‘제2차 당포·당항포 등 네 곳의 승첩을 아뢰는 계본’을 통해 사천해전에 첫 출전, 전투 초기 대포를 발사하면서 왜적의 함대안을 돌파하여 적진을 혼란스럽게 하며 전공을 세웠음을 알 수 있다.

3) 화기

조선은 고려에 이어 화약무기 개발에 전력하였다. 태종대에는 화차를 만들었고, 화통군도 수백 명 수준에서 1만 명으로 증가하였으며, 균기감 내에 화약감조총을 설립하여 화기 보급에 힘썼다.⁹⁵⁾ 세종대에도 금속채굴을 장려하거나, 각 도에 화포사용법

94) 민계식 외, 『임진왜란과 거북선』, 서울: 행복한 에너지, 2017, 54~55쪽.

95) 육군군사연구소(2012), 428쪽.

훈련을 시키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⁹⁶⁾ 완구의 개량, 발화의 출현, 신포의 사용, 소화포의 출현 등 화기의 중요 개량 및 발명이 이루어져 해상과 육상의 무기로 사용되었다. 세종 27년(1445)에는 일발사전포의 사정거리가 1천여 보로 배가 증가하였고, 화약 소모량과 불발률도 감소하여 전국의 모든 화포를 문종대에 이르기까지 새로 개조하였다. 또한, 세종은 염초 생산을 담당하는 ‘사포국’과 화기 방사군을 담당하는 특수부대 ‘총통위’를 신설하였다. 문종 역시 화기의 제조와 염초의 생산을 높이기 위해 염초 생산기술을 지방에 보급한 후 군현 단위의 정액 공납을 실시하였다.

이후 성종 말부터 중종 초기까지는 군사적 위협 감소로 화기 제조에 큰 변화는 없었으나, 중종 말년부터 왜구 중 선박과 화기 등을 보유한 자가 나타나며 이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을묘왜변 당시 왜적이 견고한 배와 위력적인 화기를 사용하자, 천자총통과 그 발사체인 대장군전이 이에 대응하는 방책으로 논의되었다.⁹⁷⁾ 임진왜란 시기 조선수군이 사용하여 위력을 발휘한 화기, 즉 천자, 지자, 현자, 황자 등 4종류의 대포는 명종 12년부터 제작되었다. 조선은 백성의 어려움에도 총통

96) 세종은 화약무기 개발에 전력하였고 그 예는 다음과 같다. 세종 7년(1425) 전라감사가 새로 만든 천자철탄자, 당소철탄자 및 차소철탄자 3종을 진상하였다. 8년(1426) 호조의 주청대로 경상도 창원부, 황해도 수안과 장연에서 매년 주물과 단조를 진상하도록 결정 및 시행하였다. 11년(1429) 금속채굴을 장려하고, 12년 명나라 병기를 각 도에 모방 제작 지시하였다. 13년(1431) 경회루에서 화포 연습하였고, 15년(1433) 평안도와 함경도 야인들에게 철물 판매 금지와 군기용 철재를 왜인에게 방매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19년(1437) 화포교육관 박대생은 각 도에서 화포사용법을 훈련하였다. 정진술 외(2008), 280~281쪽.

97) 전라도 관찰사 김주(金澗)는 장계를 통해 “왜변(倭變)이 창궐하여 화(禍)가 극심합니다. 적선(賊船)을 깨뜨리는 기구로는 대장군전(大將軍箭)보다 나은 것이 없으나 총통(銃筒)을 주조할 솜씨를 준비할 방법이 없어서 이준경(李浚慶)이 여러 사찰의 종을 거두어 총통을 주조하려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명종실록』 19권, 명종 10년 7월 22일 갑인 1번째 기사.

제작을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었고, 명종 18년(1563)까지 10만 근 이상의 동과 철을 소비하여 총통을 제작하였다.⁹⁸⁾

헌부가 아뢰기를, "적을 막는 계책은 총통(銃筒)보다 더 좋은 것이 없으니, 비변사가 그것을 많이 만들려고 하는 것은 과연 옳은 일입니다. (중략) 관고(官庫)의 물건은 씻은 듯이 텅 비었는데 지난해에 전선을 만들고 총통을 주조하느라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차 비용을 대어갈 수가 없는데, (중략) 오로지 총통에만 힘을 쓴다면 또한 곤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백성들의 실정으로 말하면 백성의 원망이 이미 깊고, 국가의 회계로 말하면 나라의 비용이 넉넉지 못합니다."⁹⁹⁾

중종 17년 전후 벽포(霹砲) 제작, 명종 초년 철환화포(鐵丸火砲)의 수입, 명종 16년 직제학 서후의 수전용 벽력포 제작¹⁰⁰⁾, 군기시를 통해 명나라로부터 철환과 화포 기술을 배워 연변(沿邊) 각처에 정치하여 수전용으로 사용하게 한 것¹⁰¹⁾ 등은 조선수군의 화력을 강화시켜 주었다. 그 덕분에 해전에서 사용된 대형포들은 사정거리와 화력 면에서 일본을 압도하였다. 일본 조총의 사정거리가 100~200m(실전 50~50m)인데 반해 조선의 화포와 궁노의 사정거리는 200보(약 240m)였다.¹⁰²⁾

을묘왜변을 계기로 명종 10년부터 12년까지 이루어진 대규모

98) 조정에서는 왜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총통이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있었으나, 명종이 모후 문정왕후의 불심에 반대하지 못해 절의 종을 녹여 사용하지 못하고 민간에서만 총통의 재료인 동철(銅鐵)을 징발하여 원성이 자자하였다.

99) 『명종실록』 21권, 명종 11년 10월 5일 경인 2번째 기사.

100) 『중종실록』 41권, 중종 16년 1월 16일 기사 3번째 기사.

101) 『명종실록』 3권, 명종 1년 4월 23일 기유 1번째 기사.

102) 신윤희(2023), 126쪽.

의 총통구조는 우리나라의 화기발달사에 있어 특기할 정도였으나, 명종 20년부터 선조 15년에 이르는 약 20여 년 동안은 실록에서 화기에 관한 기록을 거의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침체에 접어든다.¹⁰³⁾ 이는 종종 시기에 이미 정비되어 보편화되었기 때문에 실록에서 화기명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던 것과는 분명 다른 의미였다. 선조 9년 3월, 11년 3월 등 그 당시 실록에는 군기를 수정하지 않거나, 임의로 군기를 개비하고, 군졸들이 지휘관의 지시에 반발하는 등 군기문란 사고가 잇따라 기록된 것으로 보아 군기강이 해이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¹⁰⁴⁾ 그러나 염초의 자취, 화약의 제조, 파진군(破陣軍)의 편성 등은 비록 활발하지는 않았으나, 화약무기의 기능은 존속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¹⁰⁵⁾

다. 해전의 방법: 해양전술

해전에서 일본군의 전술은 기동력이 좋은 배로 상대의 배에 접근한 뒤 타고 올라(登船) 창칼로 무장한 인원들이 육박전(白兵戰)을 벌이는 형태였다. 그러나 이러한 왜적의 해양전술은 조선이 기동성과 화력면에서 압도적인 판옥선이라는 군선을 실전에 배치하면서 더이상 가능하지 않았다. 먼저 사정거리가 더 긴 총통으로 원거리 공격을 감행하여 왜적의 접근 자체를 허용하지 않았다. 적재적소의 전술로 접근 기회를 최소화했고, 설사 접근했다 하더라도 함선 자체의 규모와 견고함으로 근접전에서 일본군에게 더 큰 피해를 주었다. 일본이 정유재란을 준비하면서 대형함선인 아타케부네를 집중적으로 건조하였고, 대형화기를 적재

103) 허선도(1997), 207쪽.

104) 허선도(1997), 163쪽/211쪽.

105) 허선도(1997), 228쪽.

할 수 있도록 조치한 사실은 판옥선이 전술 면에서 더 유리한 군선이었음을 증명한다.¹⁰⁶⁾ 거북선 역시 일본군이 접근하여 배안으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창칼로 무장한 겹선에서 발전한 것이다. 거북선은 실전에서 돌격선으로 활약하며 화력과 규모, 견고성에서 일본의 배를 압도했다.

조선수군은 또한 해전에서 세력과 화력의 집중을 중시했다. 조선전기 수군은 육군과 같이 1451년에 편찬된 『신진법』, 1492년에 간행된 『오위진법』에 따라 5종의 진형과 비오행진 계열의 11개의 진형을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¹⁰⁷⁾ 임진왜란시 이순신이 사용한 학익진, 장사진 등 조선수군은 전략과 해전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진법을 사용하여 세력을 집중, 분산 운용하였다.¹⁰⁸⁾

화력의 명중률을 높이기 위해서도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함포의 성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평저선의 선형구조와 한국식 노¹⁰⁹⁾가 지닌 장점을 활용하여 진법을 보완하였다. 학익진 등 조선 초기 수군이 사용하였던 진법은 육상용으로 고안된 것이었기 때문에 함포를 주력 무기로 사용하는 해전에서는 불리할 수 있었다. 이에 조선수군은 함선을 신속하게 선회하여 함포가 위치한 현측을 적함으로 향하도록 하거나, 화력 집중에

106) 일본 역시 해전의 실패 원인이 화력의 열세에 있음을 인지하였다. 有馬成甫, 『조선역수군사』; 신윤호(2023), 126쪽에서 재인용.

107) 김병륜(2010), 143~144쪽.

108) 장학근은 조선수군이 적 진영에 접근할 때는 장사진, 전투태세를 갖추고 대기할 때는 학익진, 사격권 내에서 사격할 때는 각월진, 적 세력 약화로 각 함선 돌격 시에는 어린진, 적을 포위 섬멸 시에는 조운진을 사용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장학근(1985), 157~158쪽. 그러나 『난중일기』에는 학익진, 장사진 등 일부 진법을 제외하고는 해전시 조선수군이 사용한 구체적 진법 등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 현재로서는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향후 이 부분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109)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의 판옥선 학술 복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식 노’라고 정의하는 노착과 노잎(노깃)을 겹쳐 이어붙인 노는 추진력과 항해성능이 약하고 전투 시 즉각적인 방향 전환에 불리하다. 따라서 판옥선에는 선체 높이(노의 길이), 추진 시 항해성능이나 방향 전환, 추력과 후퇴 등을 고려할 때 수상선(水上船)의 노구조가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2021), 64~65쪽.

문제가 없는 장사진 등을 사용하였다.¹¹⁰⁾ 둘째, 해상에서 발생하는 흔들림, 즉, 피칭(pitching), 요잉(yawing), 롤링(rolling)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형화포 방사시 최대 사거리보다 근접한 거리에서¹¹¹⁾ 사각이 낮은 직사 사격 방법을 사용하였다.¹¹²⁾ 셋째, 사격 거리와 장전 속도, 그리고 근접전의 경우 등 화포의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도 고려하였다. 『수조규식』을 통해 사거리 별 공격 내용 규정에 따라 원거리 해전뿐 아니라 적의 등선전술(boarding tactics)에도 대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¹³⁾ 16세기 초 삼포왜란에서부터 대형화기와 대형선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임진왜란에 이르기까지 조선수군의 전술에서 활이 주된 무기로 사용되었던 것도 같은 이와 같은 이유였다.¹¹⁴⁾

110) 18세기 후반에 이르러 수군의 수조 관련 조선의 문헌에서는 임진왜란 이후 도입된 명나라식 진행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에 대해 김병륜은 조선수군도 초기 진행의 내재적 한계점을 인식하였기 때문이었다고 판단하였다. 김병륜(2010), 174쪽.

111) 비변사 대신들과 왜적에 대적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에서 명종이 한 발언을 통해 당시 대형화기는 근거리에서 발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천·지·현자(天地玄字) 총통을 설치하여 기계를 정비하고 사람들은 판옥(板屋) 밑에 숨어 몸을 노출시키지 않고서 빨리 노를 저어 곧장 적선에 가까이 다가가 그 높낮이에 따라 동시에 일제히 발사했다면, 어찌 격파하지 못할 이치가 있었겠으며 사람들이 철환을 맞을 염려가 있었겠느냐.” 『명종실록』 25권, 명종 14년 6월 6일 병오 2번째 기사.

112) 김병륜은 조선 후기 군사 실학자였던 송규빈의 『풍천유향』을 근거로 당시 조선수군은 상대적으로 사각이 낮은 직사 사격 방법을 주로 사용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김병륜(2010), 168~169쪽.

113) 조선수군은 소형 화약무기, 활, 철도리계, 조약돌 등을 운용하여 중·대형 총통의 약점을 보완하였다. 김병륜(2010), 172쪽.

114) 성종 16년(1485) 병선에 승조한 수군 중 약 33~38%가 궁수(射官)였는데, 18세기 초 판옥선 승조원의 32% 정도 역시 전투원이었던 것은 의미미하다. 한성일(2011), 120쪽.

5. 결 론

건국 초부터 왜적 대응에 노력을 기울였던 조선은 자연스럽게 제해권 확보를 위한 수군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 연구를 통해 확인할 결과 비록 그 해양정책이 조선 전기를 통해 일관되게 추진되었다고 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해양력이 약해질 때마다 연해안에 출몰했던 왜적과 그들로 인한 왜란을 겪으며 조선은 자신의 해양력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조직체계, 군선과 화기 등을 개선 및 보완한 결과, 임진왜란시 조정의 예상과 달리 해전에서 강한 면모를 보여줄 수 있었다. 즉, 임진왜란에서 조선수군이 보여주었던 우수성은 조선 초기 수많은 왜란이라는 실전을 통해 얻은 결과였다.

조선은 완전무장한 대규모의 왜적 침입이었던 삼포왜란에서 새로운 군선의 개량이 시급함을 인식하였다. 조직적이고 계획적이었던 대규모 왜란에 대응하여 조선은 삼포 개항 이래 처음으로 국교단절, 임신약조 등의 강경책까지 시행하였다.

왜선의 크기와 견고성이 증가하였고, 화약병기 기술을 습득한 왜적을 경험하였던 사랑진왜변 이후에는 대대마도 정책을 재검토하고, 무력 강화를 통한 제해권 확보를 강조하였다. 정미약조를 통해 이를 공식화하고, 새로운 군선의 개발과 연해지역의 육군과 수군의 공조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왜적의 전술적 우위와 화력의 강화가 명백했던 을묘왜변을 겪은 후 조정에서는 비변사 발족, 조선수군의 병력과 군량확보, 제승방략 체제 확립, 판옥선 건조, 총통제작 등에 진력하였다. 특

히, 판옥선의 건조는 왜적 대응이라는 임무에 맞도록 설계, 건조되어 화기와 수군 병력, 조선수군의 전술 적용 등 당대의 전략적, 전술적 개념이 집약되어 있었기에 임진왜란시 승전의 주요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조총과 총통 등으로 증무장한 손죽도왜변에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던 조선군은 16세기 국방태세가 약화되는 상황에서도 다시금 위기의식을 가졌고, 우수한 무관의 확충, 엄정한 군기와 신상필벌 강조, 전라도 지역의 해양 방어태세 강화에 노력하였다.

결국, 조선은 건국 초부터 수많은 왜변을 겪으며 해양력의 수준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이다. 임진왜란 이전에 조정에서 공유되었던 ‘일본은 수전에 강하고 육전에 약하다’라는 인식은 해전을 통해 적을 정확히 파악하고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도출할 수 있었던 결론이었다.¹¹⁵⁾ 그리고 이 인식은 역설적으로 조선수군에게 전화위복이 되었다. 왜란을 통해 해양력에서 위기의식을 느낀 조선은 한반도 주변 해역의 제해권 확보를 위해 해전의 수단과 방법을 보완, 발전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임진왜란시 조선수군이 보여주었던 우수성은 그 과정의 정당한 결과였다.

본 연구는 ‘조선 초기 왜란’과 ‘조선수군의 우수성’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증명하기 위해 각 분야에서 연구되었던 내용을 종합, 단순화하였다. 그러다 보니 각 분야에서 자세히 연구되었던 결과들이 불가피하게 누락 될 수밖에 없었던 점은 본 연구가 지닌 한계점이다. 하지만 각각의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는 성과를

115) 이산해(李山海, 1539~1609) 역시 임진왜란 이후 『아계유고』를 통해 이러한 인식을 보여주었다. “(임진년 이전) 당시에 진언하는 자가 간혹 ‘왜노가 배를 다루는 데에 장점을 가지고 있으니, 그들이 육지에 내리는 것을 노려 공격하는 것만 못합니다.’ 하였는데, 이는 서생의 의견에 불과한 것으로, 이해와 득실에 대하여 경험을 하지 않았는데 무엇을 가지고 알 수 있겠습니까.” 이산해, 『아계유고』;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2021), 237쪽에서 재인용.

종합하여 인과관계를 단순화하는 과정을 통해 오히려 역사를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교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¹¹⁶⁾

116) 역사는 전통의 계승에서 시작되며, 전통은 과거의 관습과 교훈을 미래로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역사가는 끊임없이 '왜?' 라는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더하여 '어디로?' 라는 질문도 제기한다. E. H. Carr(2014), 164쪽.

〈참고문헌〉

1. 사료

『난중일기』 『명종실록』 『선조실록』 『임진장초』 『중종실록』

2. 단행본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전통선박 조선기술 VII: 판옥선 학술 복원 보고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21.

<http://uci.or.kr//G901:A-0010636920@N2M>

고광섭, 『우리가 몰랐던 이순신』, 서울: 북코리아, 2021.

김석곤 외, 『바다를 지배하는 힘, 해군무기의 세계』, 서울: 한티미디어, 2016.

<http://uci.or.kr//G901:A-0008111928>

김재근, 『조선왕조군선연구』, 서울: 한국문화연구소, 1976.

<http://uci.or.kr//G701:B-00047809739@N2M>

민계식, 이원식, 이강복, 『임진왜란과 거북선』, 서울: 행복한 에너지, 2017.

<http://uci.or.kr//G901:A-0008760598@N2M>

방상현, 『조선초기 수군제도』, 서울: 민족문화사, 1991.

<http://uci.or.kr//G901:A-0008340334@N2M>

육군군사연구소, 『한국군사사 5: 조선전기 I』, 서울: 경인문화사,
2012.

이민웅, 『임진왜란 해전사』, 서울: 청어람미디어, 2014.

<http://uci.or.kr//G701:B-00118427028@N2M>

_____, 『이순신 평전』, 서울: 성안당, 2017.

<http://uci.or.kr//G901:A-0006416657@N2M>

임원빈, 『이순신 병법을 논하다』, 서울: 신서원, 2005.

<http://uci.or.kr//G901:A-0006116821@N2M>

정진술, 이민웅, 신성재, 최영호, 『다시보는 한국해양사』, 서울: 신서원, 2008.

<http://uci.or.kr//G901:A-0006197003@N2M>

- 제장명, 『이순신 백의종군』, 서울: 행복한 나무, 2011.
<http://uci.or.kr//I410-ECN-0102-2018-900-002408206@N2M>
- 허선도, 『조선시대 화약병기사연구』, 서울: 일조각, 1997.
- E. H. Carr, 김택현 역, 『역사란 무엇인가』, 서울: 까치, 2014.
<http://uci.or.kr//G701:B-00077619496@N2M>
- Max Weber, 김덕영 역, 『문화과학 및 사회과학의 논리와 방법론』, 서울: 도서출판 길, 2021.
- Julian S. Corbett, Some Principles of Maritime Strategy(Annapolis, Md: Naval Institute Press, 1988)
<http://uci.or.kr//G901:A-0006791351@N2M>
- John B. Hattendorf and Lynn C. Hattendorf, A Bibliography of the Works of Alfred Thayer Mahan(Newport, R.I.: Naval War College Press, 1986)
- James R. Holmes, A Brief Guide to Maritime Strategy (Annapolis, Md: Naval Institute Press, 2019)
<http://uci.or.kr//G901:A-0010196712@N2M>

3. 논문

- 김기동, “을묘왜변 전후 제주도의 방어태세”, 『역사와실학』 제79집, 역사실학회, 1994.
<http://doi.org/10.31335/HPTS.2022.11.79.95>
- 김덕진, “1587년 손죽도 왜변과 임진왜란”, 『동북아역사논총』 29호, 동북아역사재단, 2010.
<http://uci.or.kr//G901:A-0002883969@N2M>
- 김성우, “16세기 중반 국가의 군역 동원방식과 성주 사족층의 대응”, 『조선시대사학보』 18권, 조선시대사학회, 2001.
<http://uci.or.kr//G901:A-0002091965@N2M>
- 김병륜, “조선시대 수군 진형과 함재 무기 운용”, 『군사』 74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0.
<http://doi.org/10.29212/mh.2010..74.139>

- 김보한, “고려·조선의 대일본 외교와 왜구: 13~15세기 금구 외교와 그 성과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제47집, 한일관계사학회, 2014.
<http://uci.or.kr//G901:A-0003401300@N2M>
- 박주미, “전투사례를 통해 본 정신전력의 중요성과 강화방안: 임진왜란 해전 사례를 중심으로”, 『정신전력연구』 제55호, 국방정신전력원, 2018.
<http://uci.or.kr//I410-ECN-0101-2019-370-000030344@N2M>
- _____, “한국해군의 해양전략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http://uci.or.kr/I804:25009-000000081611>
- _____, “임진왜란 시기 조선수군 사례를 통한 해군병력 충원방안 고찰”, 『한국군사학논집』 78권 2호,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2022.
<http://doi.org/10.31066/kjmas.2022.78.2.011>
- 송은일, “임진왜란 초기해전(初期海戰) 승첩(勝捷)을 주도한 전라좌수군의 동력”, 『호남학』제59집,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16.
<http://uci.or.kr//G704-001854.2016..59.002>
- 신윤희, “임진왜란 시기 전라도 수군의 편제와 운용”, 『역사학연구』 제72집, 호남사학회, 2018.
<http://doi.org/10.37924/JSSW.72.3>
- _____, “임진왜란 초기 해전을 통해 본 조·일 수군 비교”, 『한일군사문화연구』 제37호, 한일군사문화학회, 2023.
<http://doi.org/10.47563/KJMC.37.5>
- 심민정, “삼포왜란의 발생원인과 대마도”, 『동북아문화연구』 제34호,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3.
<http://doi.org/10.17949/jneac.1.34.201303.004>
- 양홍숙, “1541년 두 ‘왜변’과 ‘신축약조’”, 『한일관계사연구』 제71호, 한일관계사학회, 2021.
<http://doi.org/10.18496/kjhr.2021.02.71.285>

- 이민웅, “조선전기(15~16세기)의 수군 변천”, 『이순신연구논총』 제14호,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2010.
- 이원희, “정유재란기 칠천량해전의 패인 분석”, 『군사연구』 제139호, 육군군사연구소, 2015.
<http://doi.org/10.17934/jmhs..139.201506.289>
- 이향배, “삼포왜란후 모재 김안국의 대일외교 논리와 전략”, 『해양문화재』 15호,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21.
<http://uci.or.kr//G901:A-0010572649@N2M>
- 장학근, “조선시대 해방사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1985.
- 정영석, “조선 전기 호남의 왜변에 대하여-을묘왜변을 중심으로”, 『전통문화연구』 3, 조선대학교 전통문화연구소, 1994.
- 정완희, 민승식, “칠천량해전과 명량해전의 유형전투력 분석”, 『군사』 제91호,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14.
<http://doi.org/10.29212/mh.2014..91.261>
- 한성일, “16세기 조선 수군의 전술과 궁수”, 『역사와 세계』 39권, 효원사학회, 2011.
<http://uci.or.kr//I410-ECN-0101-2013-911-000413791@N2M>
- 허선도, “이조중기 화기의 발달(上)”, 『역사학보』30권, 역사학회, 1966.
<http://uci.or.kr//I410-ECN-0101-2010-911-002473264@N2M>
- 홍혁기, “비변사의 조직과 역할에 대하여”, 『군사』 6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983.
<http://uci.or.kr//G901:A-0000544052@N2M>

(Abstract)

The Factors Affecting the Joseon Navy's Winning Maritime Battles during the Imjin War

-Focusing on the Improvements of the Navy Due to the Experiences of Fighting with Japanese Pirates Troops in the Early Years of the Dynasty-

Park, Joo-Mee

Having experienced numerous attacks by Japanese pirates from the early years of the dynasty, Joseon viewed that 'Japanese pirates troops were strong on water, but weak on land'. However, when the Imjin War, Japanese invasions of Korea (1592~8), took place, the Joseon Navy managed to win battles continuously from the beginning of the war, while the Joseon Army was defeated on land. Accordingly, there have been many researches examining why its navy could continue to win battles. However, as those researches have tended to focus on specific aspects of the battles, they have some limits in comprehensively understanding it.

Accordingly, this study comprehensively analyzed direct impacts of the attacks of Japanese pirates troops on the Joseon Navy. That is, using principles of maritime strategy of Julian S. Corbett, this study proved that the experiences of fighting with Japanese pirates troops in the early years of the Joseon dynasty helped the Joseon Navy win the maritime battles during the massive invasions of Japan Japanese invasions in the late 16th century called Imjin War. To achieve the research purposes, this study applied the historical social science methodology of Max Weber.

This study did not aim to discover new facts, but to prove that the excellency of the Joseon Navy in the Imjin War was the results of experiences of fighting Japanese pirates and troops in previous years. To achieve the

research aim, this study comprehensively analyzed research findings which had been done in different areas.

This study found out that fighting experiences with Japanese pirates troops in the early years of the dynasty helped Joseon to strengthen its naval power to secure the command of the sea. Of course, Joseon did not consistently pursue such a maritime strategy in the early years of the dynasty. But, dealing with Japanese forces in Sampo Waeran, Saryangjin Waebyeon, Eulmyo Waebyeon, and Sonjukdo Waebyeon, etc., Joseon could clearly figure out shortages and defects of its maritime war capacities, and improve its naval structure, warships and weapons over time. As a result, the Joseon Navy could show its strong aspects during the Imjin War.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understanding of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Japanese attacks in the early years of Joseon and supremacy of the Joseon Navy during the Imjin War and understanding of history from the consilient perspective.

Keywords : Joseon Navy, Sampo Waeran, Saryangjin Waebyeon,
Eulmyo Waebyeon, Sonjukdo Waebyeon, Imjin War,
Julian S. Corbett, Maritime Strategy, Maritime Tactic